



희귀식물 시리즈 <16>

흰 연꽃

• 학명 *Nelumbo nucifera* Daertner



글쓴이 · 김 재 황 / 사진 · 김 중 권

거울같이 잔잔한 물 위에 순결한 모습으로 피어나는 흰연꽃은,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을 보는 듯하다.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고나 할까?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옷깃을 여미게 한다.

물론, 연꽃은 붉은 빛깔의 꽃을 피운다. 그래서 연꽃이라고 하면 연붉은 빛깔의 꽃송이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더러 흰 빛깔의 꽃도 있어서 더욱

연꽃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옛날, 먼 아라비아 나라에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 당시에 아라비아에는 물이 귀했으며, 샘물마다 주인이 있어서 물을 팔고 샀는데, 그 소녀는 푸른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소녀의 샘물은 참으로 맑고 시원해서 사막을 건너 온 사람들은 모두가 그 샘물을 원했기에, 그 소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착한 소녀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나누어주곤 했다.

어느 날이었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물을 청했다. 그 행색으로 보아서 물 값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지만, 마음씨 착한 소녀는 친절히 그에게 물을 떠서 주었다. 젊은 이는 물을 맛있게 받아서 마시고 나서는 보답의 뜻이라며 몸에 지니고 있던 향수를 물그릇에 부어 주고는 떠났다.

그리고 얼마의 날이 지났을 때였다. 그 나라 왕자가 왕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샘터를 온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다. 그 소문을, 그 곳 샘터를 관장하는 성주도 듣게 되었다. 성주는

아주 욕심이 많았으므로, 자기의 딸을 푸른 샘물 앞에 앉혀 놓고, 마음씨 착한 소녀는 먼 곳으로 쫓아내고 말았다.

마침내 왕자 일행이 푸른 물이 솟는 샘터를 찾아왔다. 성주의 딸은, 자기의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암전히 물을 떠서 주었다. 왕자는 그 물그릇을 받아 들고서 냄새를 맡아 본 후에 몹시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물그릇이 아니야. 향기가 없단 말야.”

왕자는 힘없이 궁궐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낭패를 본 성주는, 독한 마음을 먹었다. 마음씨 착한 소녀를 찾아가서, 향내 나는 물그릇을 빼앗고는, 그녀를 연못 속에 밀어넣어 버리고 말았다. 그 슬픈 소식은 어느 틈에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고, 왕자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왕자는 말을 달려서 그 연못을 찾아갔으나, 다만 마음씨 착한 소녀를 닮은 한 송이 흰 연꽃이 피어나 있을 뿐이었다.

연꽃은 일명 ‘만다라화’(曼荼羅花)라고 부른다. 불가(佛家)에서 무척이나 존중하는 꽃이다. 우리에게는

효녀 심청이가 용궁에서 물 밖으로 타고 나왔다는 이야기로 하여 친근감을 지니게 된 꽃이기도 하다. '뇌지'(雷芝) 또는 '연하'(蓮荷)라는 호칭도 지니고 있다. 장수·건강·명예·행운·군자 등을 상징한다. 꽃말은 '순결'이고, 인도와 이집트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연꽃은 7월부터 8월에 걸쳐서 꽃이 피어난다. 꽃잎의 모양이 달걀꼴이어서 정감이 있다. 그러나 연붉은 빛깔의 꽃보다 흰 빛깔의 꽃이 우리 정서에 맞을 성싶다. 꽃과 꽃망울, 그리고 꽃수술 모두를 약재로 사용한다. 즉, 심장을 진정시키고 몸을 경쾌하게 하며 얼굴빛을 곱게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연꽃이 지고 나서 달리는 열매인 연밥은, 기력을 길러주고, 백 가지 병을 없애주는 특효가 있다고 전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 방에서는 연실의 딱딱한 과피를 벗

겨 버리고 나서, 달여 마시도록 한다. 신체허약·설사병·몽정·자양강정제·보음양혈제로 많이 쓰이고 있다. 연실은 수명이 아주 길어서, 1천년 이상이나 살아 있을 수 있다고 하며, 그 발아율도 100%에 가깝다고 한다. 그 이유는 껍질이 단단하고, 함유량이 적어서 저호흡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내구력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연꽃은 약효를 지녔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결코 아니다. 그 모양이 아름답기에 많은 사람들이 연꽃을 찾는다. 더욱이 흰 빛깔의 꽃을 지닌 연꽃은, 순결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살던 조선조 여인을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바람을 타고 흔들리는 흰 연꽃의 모습에 넋을 잃곤 한다.▲▲

